

# 초점 연계사 ‘아직’의 의미와 분포에 관하여\*

이 영 주  
(서울여자대학교)

Lee, Youngjoo. (2014). On the meaning and distribution of the focus-sensitive particle *acik*. *Language Research*, 50.3, 715-735.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aspectual adverb *acik* in Korean, often translated as *still or yet*, is a focus-sensitive particle that exploits alternatives on a temporal scale. *Acik* is a kind of exclusive particle that selects the lowest bound on a temporal scale and denies the upper values, thus yielding a negative entailment even in positive sentences. It is shown that the distributional constraints of *acik* follow from the proposed semantics and the properties of a temporal scale. *Acik* can occur only in contexts where some upper or later elements can be assumed. In addition to the well-known imperfective constructions due to progressives, resultatives, and negation and negative predicates, this paper newly identifies a set of constructions that allow *acik* such as degree adverb *tel* ‘less’ with accomplishment predicates, modal constructions of possibility and necessity, *before*-clauses, and imperatives and exhortatives with negative force. All these constructions make a temporal scale possible, and the adverb conveys a contrast between the current phase and the possible next phase that has not been realized yet.

**Keywords:** *acik*, aspectual adverb, focus-sensitive particle, imperfective aspect, temporal scale, negative entailment

## 1. 서 론

‘아직’에 대한 논의는 ‘이미’나 ‘벌써’와 함께 상부사(aspectual adverb)로서의 의미에 집중되어 왔다(김진수 1985, 김선희 1987, 임서현, 이정민 1999 등). ‘아직’은 평가시(reference time)에 지속되고 있는 어떤 상태가 평가 시 이후에 변화할 것을 함축하는 부사로 기술되며, 이러한 의미는 지속(continuity)의 상적 특성을 보이는 맥락에 나타나는 ‘아직’의 분포 제약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지영 2010). 반면 Y Jun (1998)과 EH Lee (2008)은 상부사가 갖는 초점사적 특성에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논평을 주신 세 분 심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조금 더 나은 논문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두고 ‘아직’은 상부사로, 보조사와 결합한 ‘아직도’는 초점부사(*focus adverb*)로 구분하였다. 초점사로서의 상부사는 문장이 기술하는 상태에 대한 단언과 더불어, 반대의 극성을 가진 선택지(*alternative*)에 대한 부정을 통해 두 상태의 대조를 표현한다. 최근 Y Lee (2011)은 ‘아직’의 용법을 상적인 것과 척도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두 용법이 각기 다른 초점사(*focus particle*)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sup>1)</sup>

본 논문은 ‘아직’이 보조사 ‘-도’ 없이도 그 자체로 초점 연계사(*focus-sensitive particle*)라는 입장을 취한다. ‘아직’은 초점 성분에 의해 도입된 선택지들 가운데 하한값을 선택하고 상위값을 부정하는 배제 초점사(*exclusive particle*)로 기능한다. ‘아직’이 취하는 척도는 담화 맥락에서 시간 순(*temporal order*)으로 배열되는 시간 척도(*temporal scale*)이다. 시간 척도의 속성에 따라, 척도상의 하한값에서 상위값으로 변화는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의 진행은 불가하고, 이것은 ‘아직’의 분포 제약과 연결된다. 즉, ‘아직’은 부정될 수 있는 상위값이 존재하는 맥락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아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고 있-’이나 ‘-어 있-’과 같은 미완료(*imperfective*) 구문이나 부정소/부정술어 이외에도, 완성동사와 나타나는 부사 ‘덜’, ‘-수 있-’이나 ‘-야 하-’와 같은 양상 표현, ‘전(*before*)’을 포함하는 명사구나 절, 부정의 효력을 가진 명령문이나 청유문 등이 ‘아직’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표현은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아직’은 척도상에 존재하는 선택지들 가운데 평가시의 상태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음 상태 사이의 대조를 전달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아직’을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 가운데 하한값을 지시하는 초점 연계사로 규정한다. 이어 3장에서는 ‘아직’을 허용하는 구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간 척도의 속성을 이용하여 ‘아직’의 분포를 설명한다. ‘아직’은 명시적 부정 맥락이나 부정 함의를 갖는 긍정 맥락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척도의 끝점(*scalar endpoint/low-er bound*)이나 의미적으로 약한 요소(*weak element*)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보통 부정극성을 띄게 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Krifka 1995, Lahiri 1998, Lee, Chung, and Nam 2000 등),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아직’의 의미/통사적 성격은 그것의 부정극성을 시사하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은 아직 부정극어의 지위를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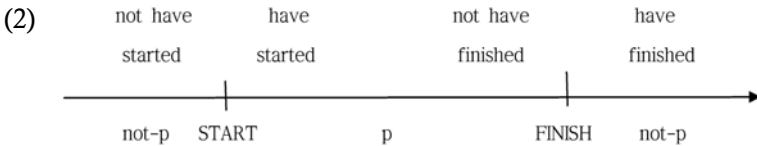
1) EH Lee (2008)의 초점부사와 Y Lee (2011)의 초점사는 모두 초점 연계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초점사, 초점부사, 초점 연계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초점 연기사로서의 ‘아직’

대당 사각형(square of opposition)의 맥락에서 상부사의 논리적 특성을 분석한 Y Jun (1998), 임서현, 이정민(1999)의 논의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의 ‘아직’은 상적으로 다른 양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1) a. 미나가 아직 잔다.
- b. 미나가 아직 안 잔다.

(1a)의 ‘아직’은 자고 있는 상태가 끝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1b)의 ‘아직’은 잠드는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변화를 (2)와 같이 표현했을 때(ter Meulen and Smessaert 1994), 긍정문의 ‘아직’은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the not-have-finished area)에, 부정문의 ‘아직’은 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구간(the not-have-started area)에 위치하게 된다(Y Jun 1998, EH Lee 2008).



‘아직’은 긍정문에서는 영어의 *still*에, 부정문에서는 영어의 *yet*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견 중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긍정문의 ‘아직’을 긍정의 상태(p)가 지속되는 것으로, 부정문의 ‘아직’을 부정의 상태(not-p)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아직’의 기본 의미는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태의 지속과 더불어 그 상태의 종료 가능성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a)의 경우, 발화시에 자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 (2)의 FINISH 지점 - 이 상태가 끝나는 사건, 즉 잠에서 깨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b) 역시 깨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지만, 발화시 이후에 - (2)의 START 지점 - 잠드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에 대해서는 ‘아직’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Löbner 1989).

- (3) a. \*지구는 아직 태양계에 속한다.  
 b. \*미나는 아직 죽어 있다. (vs. 미나는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점에서 Y Lee (2011)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아직’ 모두를 시간의 영역(temporal domain)에서 첨가와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떤 상태의 지속은 첨가의 ‘-도’와 유사하고, 그 상태의 중단에 대한 기대는 대조의 ‘-은’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아직’이 이들 보조사와 공기하는 것이 ‘아직’이 가진 첨가와 대조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Y Lee (2011)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아직’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둘을 포함하는 상적인 ‘아직’과는 다른 척도적인(scalar) ‘아직’을 설정하고 별도의 어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Y Lee (2011: 54)에서 척도적인 ‘아직’의 예로 제시된 예문들은 나이나 직급 등 그 자체로 척도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 (4) a. 미나는 아직 다섯 살이다.  
 b. 미나는 아직 조교수이다.

Y Lee (2011)은 (4a-b)의 ‘다섯 살’이나 ‘조교수’가 ‘여든 살’이나 ‘정교수’로 대체될 때,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에 근거하여 ‘아직’이 척도상의 하한값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아직’은 척도상의 하한값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다섯 살/조교수’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여섯 살/부교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척도적인 *only*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척도적인 ‘아직’의 범주를 설정한다. 이러한 분류에 대한 근거로 Y Lee (2011)은 상적인 ‘아직’이 발화시 이후에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함축을 가지는 반면, 척도적인 ‘아직’은 이러한 함축의 기여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상적인 ‘아직’에 동반되는 함축을 (4a)에 적용하면, 미나가 미래 어떤 시점에 다섯 살이 아닐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함축하게 되는데, 그런 함축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담화에 기여하는 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시점의 변화에 대한 함축보다는 발화시에 어떤 상태에 있지 않음이 척도적인 ‘아직’이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주장이다. 즉 (4a-b)는 각각 ‘미나는 아직 여섯 살/부교수 혹은 그 이상이 아니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평가시에 어떤 상태  $p$ 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때, 상적인 ‘아직’은 미래시에  $\text{not-}p$ 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함축하는 반면, 척도적인 ‘아직’은 평가시의 상태  $p$ 가  $\text{not-}p$ 의 상태와 대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아직’이 두 종류의 대조를 나타낸다는 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과연 이 둘이 서로 다른 종류인지에 대한 근거는 다소 약하다. 척도적 ‘아직’의 예시에 사용되는

척도는 모두 시간적인 척도라는 점에서 척도적인 ‘아직’이 상적인 ‘아직’과 완전히 별개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또한 두 종류의 대조, 즉 평가시와 미래시 간의 상태 대조와 평가시의 두 상태간의 대조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van der Auwera 1993의 이중 선택지 가설 참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Y Lee (2011)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이 보조사의 도움 없이도 초점 부사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척도적인 ‘아직’은 문장이 기술하는 상태와 반대의 극성을 가진 두 상태의 대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초점 부사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발전시켜, 상적인 ‘아직’을 포함하여 ‘아직’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를 시간 척도상의 대조를 나타내는 초점사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아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발화시와 그 이후의 대조에 주목했지만, 발화시에도 상태  $p$ 와  $\text{not-}p$ 사이의 대조가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문장이 기술하는 상태에 대한 부정이 시간 척도상의 상위값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still*에 대해서 Krifka 2000). 다섯 살이라는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즉 다섯 살이 아닌 상태는 논리적으로 그 보다 아래인 네 살일 수도 있고, 그 보다 위인 여섯 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능한 해석은 항상 상위값이다. 겉보기에 긍정문에 나타난 ‘아직’이라도 실제로는 시간 척도상의 상위값을 부정하는 부정문인 것이다.

본 논문은 ‘아직’을 시간 척도상에 위치한 선택지들간의 대조를 나타내는 초점 연계사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아래 (5)와 같이 정리한다. ‘아직’과 연계되는 초점은 어휘적 혹은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시간 척도상의 하한값이며, 이와 동시에 시간 척도상의 상위값을 부정하게 되므로 부정함의를 동반하게 된다.

- (5) a.  $[[\text{아직}]] = \lambda t_i. \lambda A_{\langle i,t \rangle}. A(t) = 1 \ \& \ [\forall B \in \text{ALT}(A) \ \& \ A < B: \neg B(t)]$   
 b.  $[[\text{아직}]](A)(t) = (A)(t) = 1 \ \& \ [\forall B \in \text{ALT}(A) \ \& \ A < B: \neg 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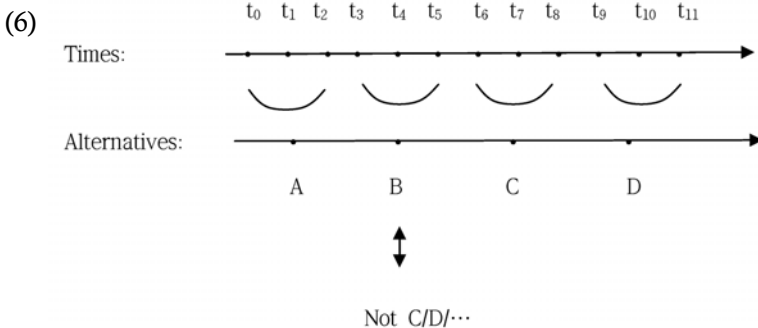
상태술어(statives/imperfectives) A에 위치하는 초점은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 집

2) ‘아직’과 달리 영어 *still*은 주변성(marginality)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 척도 이외의 다양한 척도를 취할 수 있다(Michaelis 1993, Ippolito 2007). (i-a)는 텍사스 주에 속하는 정도에 따른 척도를 가정할 때, 엘파소가 그 척도상의 낮은 점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지리적으로 텍사스의 극서에 위치하여 멕시코와의 국경, 뉴 멕시코와의 주 경계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파소는 텍사스에 속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i-b)는 *safe*가 도입하는 안전성의 척도가 기준이 되고 있다. 세단은 경차보다는 안전성의 척도에서 상위에 존재하며, 경차는 세단보다는 떨어지지만 주변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함의 영역에는 속함을 전달하고 있다.

- (i) a. El Paso is still in Texas.  
 b. A: Tell me about sedans, compact and subcompact cars. Are they safe?  
 B: Well, sedans are definitely safe. Compact cars are still safe. Subcompacts start to get dangerous.

합  $ALT(A)$ 를 도입하고, ‘아직 A’는 평가시( $t$ )에 A가 성립하며, 동시에 선택지 집합에 있는 B는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한다. 선택지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A보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 제한된다(Krifka 2000, Y Lee 2011). 척도상의 하위값을 선택하면 상위값이 부정된다는 점은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과 유사하기도 하지만(Horn 1972), 상위값에 대한 부정이 어휘 의미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 선택지 가운데 일부가 평가시 이후에 성립하는지는 ‘아직’이 전달하는 어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며, 함축일 뿐이다. 즉 평가시점에 A와 not-B사이의 대조가 ‘아직’이 전달하는 의미의 핵심이다.

위에 제시된 어휘 의미는 배제 초점사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선택지의 종류에 대해 ‘ $A < B$ ’라는 순서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본고는 Löbner (1989), Krifka (2000)과 마찬가지로 시점과 선택지간의 단조 사상(*monotonic mapping*)을 가정한다. 시점에서 선택지로 대응하는 함수( $f: [T \rightarrow A]$ )를 가정할 때, 두 선택지 간의 순서( $A < B$ )는 함수값이 A인 모든 시점  $t(\forall t: f(t)=A)$ 가 함수값이 B인 모든 시점  $t'(\forall t': f(t')=B)$ 을 선행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한은 (6)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sup>3)</sup>



평가시가  $t_4$ 라고 할 때, 평가시의 상태인 B에 후행하는 상태인 C나 D만이 의미있는 선택지로서 부정의 대상이 되고, B를 선행하는 A 혹은 그 이전의 상태들은 선택지에서 배제된다. 평가시  $t_4$ 에 발화된 ‘아직 B’는 B가  $t_4$ 에 성립하고 C와 그를 뒤따르는 선택지들은  $t_4$ 에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미나는 아직 다섯 살이다’의 경우, ‘미나는 다섯 살이고, 여섯 살 혹은 그 이상은 아니다’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을 포함한 문장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상태의 상위값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부정문이다.

‘아직’과 연계하는 성분이 시간 척도의 하한값이라고 할 때, 이는 절대적인 하한값

3) (7)에서  $f(t_0)=f(t_1)=f(t_2)=A$ 이며, 다른 시점과 선택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된다.

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A가 나이, 직급, 순서 등 자체적으로 척도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일치하는 척도상의 다음 단계가 상위값 B가 되고, A는 이들 상위값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한값이 된다. <다섯 살, 여섯 살>, <조교수, 부교수>, <아마추어, 프로>, <(출근) 전, (출근) 후> 등이 예가 된다. 물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아마추어가 무조건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소가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형성되는 척도이다. <서투르다, 익숙하다>, <덜 익다, 다 익다>, <모르다, 알다> 등 술어의 짝 역시 노력이나 환경적 조건을 동반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에서 B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시간 척도를 형성한다. 이들 시간 척도를 구성하는 표현들은 표면적으로 술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모두 <i, t> 유형의 표현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 논항을 제외한 술어의 필수 논항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점간의 선후관계에 의해 시간 척도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아직'은 시간 척도 <A, B>에서 평가시에 A의 상태에 있으며, B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전달한다.<sup>4)</sup> 본고가 제시하는 입장에서 상적인 '아직'으로 분류되는 (1)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아래에 (7)로 다시 제시한다.

- (7) a. 미나가 아직 잔다.
- b. 미나가 아직 안 잔다.

문장에 자체적으로 척도적인 표현이 없는 경우, 시간 척도의 형성은 화용적 맥락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배열된 수면과 각성의 주기에 근거하여 시간 척도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수면의 상태는 깨어남이라는 전이의 사건을 통해 각성의 상태로 이어지므로, <잔다/자고 있다, 깨어 있다>의 시간 척도를 가정하게 되고, {잔다, 깨어 있다}의 선택지 집합이 형성된다. 따라서 (7a)는 '미나가 자고 있으며, 깨어 있지 않다'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시간 척도는 <i, t> 유형의 표현들로 구성되므로, 본래 어휘 의미에 의한 상태 술어 혹은 문법표지에 의해 도출된 상태 술어만이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로 가능하다. 다른 맥락에서는 <안 잔다/깨어 있다, 잔다>가 가능한 척도가 되어 {안 잔다, 잔다}의 선택지 집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긍정과 부정의 상태가 선택지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되어, 전체 문장은 극성 초점(polarity focus) 구문이 된다(EH Lee 2008).

4) 시간 척도가 반드시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택지 역시 두 개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휘의 특성에 따라 <조교수, 부교수, 교수>, <...,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처럼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로 구성되기도 한다. 다만 <A, B, C, ...>의 시간 척도를 가정하는 경우, '아직 A'라는 발화는 B가 아님을 의미하고, B가 아니라면 당연히 C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C나 그 이후의 값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표지 '...'은 제시된 하한값의 앞이나 상한값의 뒤에 다른 단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본고가 취하는 ‘아직’에 대한 입장이 기존의 논의와 구분되는 점은 평가시 이전이나 이후의 상태보다는 발화시의 대조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Y Jun 1998, Y Lee 2011)와 달리 본고의 제안은 평가시 이전 상태에 대한 전제를 ‘아직’의 어휘 의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래의 예문들은 이 전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가정해 왔던 것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8) a. 출생 직후에는 아직/#여전히 얼굴에 점이 있었어요.  
 b. 출생 직후에는 아직/#여전히 얼굴에 점이 없었어요.  
 c.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여전히 경험이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출생 직후’나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이전 시점을 상정할 수 없는 표현이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아직’은 문제없이 쓰일 수 있다. 반면에 명확히 전제적인 표현인 ‘여전히’가 쓰이면 문장은 매우 어색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영어의 상부사 *still not*과 *not yet*의 의미 차이와도 평행적이다.

- (9) a. #Peter's eyes were still brown when he was born.  
 b. #Peter's eyes were still not brown when he was born.  
 c. Peter's eyes were not yet brown when he was born.

(9a-b)와 (9c)간의 대조는 이전 상태에 대한 전제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Mittwoch 1993). *Still*과 *still not*은 이전 상태에 대한 전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므로, (9a/b)는 각각 피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갈색 눈이었음/갈색 눈이 아니었음을 가정한다. 피터의 눈동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은 색이었을 것을 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9a-b)의 어색함은 출생 이전의 단계가 *still*이나 *still not*의 전제를 충족시켜주는 전 단계로서 간주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9c)는 어색하지 않은데, 이것은 *not yet*이 *still*이나 *still not*처럼 이전 상태에 대한 전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9c)는 피터가 태어났을 때와 다르게 현재 갈색 눈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한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8)을 보았을 때, ‘아직’ 역시 이전 상태가 평가시까지 지속된다는 전제보다는 평가시와 발화시 간의 대조, 즉 출생시 있던 얼굴의 점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8a), 출생시 없던 점이 지금은 얼굴에 있다는 것(8b), 그리고 현재는 처음과 달리 경험이 있다는 것(8c)을 전달하고 있다.

(8)에 근거한 논의는 ‘아직’의 어휘 의미에 전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지지해 주지만, 동시에 ‘아직’이 왜 그동안의 논의에서 전제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이것이 상태 술어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



즉 시간 상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속성에 근거한다고 본다. 어떤 상태가 어느 순간에 성립한다면, 그 순간의 앞뒤는 모두 그 상태가 성립하는 다른 순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Altshuler & Schwarzschild 2012). 어떤 상태의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 자체는 상태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그 상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Smith 1997). ‘아직’을 포함하는 문장들은 어휘적으로 상태 술어, 혹은 문법 표지에 의해 상태화된 미완료상의 문장들이므로, 문장이 가리키는 어떤 상태가 평가 시에 성립한다면, 그 상태가 성립하는 평가시 이전의 시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아직’이 전제적인 표현으로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 가운데 하한값을 선택하는 배제 초점사이다. 초점 표현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할 수 있는 술어들이 척도상의 상위값이 되고, ‘아직’을 포함하는 긍정문은 실제로는 이들 상위값을 부정하는 문장분이 된다.

### 3. 시간 척도의 속성과 ‘아직’의 분포

‘아직’의 분포는 앞 절에서 제시한 ‘아직’의 의미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아직’은 시간 척도의 하한값에 연계되어 상위값을 부정하는 표현이므로, 후행하는 상위값이 존재하는 맥락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 A’는 A가 종료될 수 있는(terminable) 상태이며, 도달하지 못한 다음 단계인 B 상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고 있-’이나 ‘-어 있-’과 같은 미완료상 구문이나 부정소/부정술어 이외에도, 완성 동사와 나타나는 부사 ‘덜’, ‘-수 있-’이나 ‘-야 하-’와 같은 양상 표현, ‘-전(before)’을 포함하는 명사구와 절, 부정의 효력을 가진 명령문이나 청유문 등이 ‘아직’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표현들은 모두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아직’은 문장이 형성하는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들 간의 대조를 전달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아직’의 출현을 허용/불허하는 표현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3.1. 시간 척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상태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면, 그 상태의 다음 단계로 가정할 수 있는 상태는 없다. 즉, 시간 척도는 형성될 수 없으며, ‘아직’이 전달할 수 있는 척도상의 대조도 없게 된다. 이것이 아래 문장들이 좋지 않은 이유이다.

- (10) a. \*2 더하기 2는 아직 4이다.
- b. \*지구는 아직 태양계에 속한다.

완료상을 나타내는 과거시제의 문장에서 ‘아직’이 불가능한 것 역시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 (11) a. \*미나가 아직 걸었다.  
 b. \*미나가 아직 차에 탔다.

사건 술어의 과거형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종료될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이 된다. Parsons (1990)는 이러한 상태를 완료적 결과 상태(resultant state)로 부르고, 술어 자체의 사건 구조에 의해 야기되는 어휘적 결과 상태(target state)와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미나가 차에 탔다면, 이 사건의 완료적 결과 상태는 미나가 차에 타는 사건이 일어났음의 상태로, 이것은 후에 취소될 수 없는 영구적인 상태이다. 반면 이 사건의 어휘적 결과 상태는 미나가 차에 타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다. 차에 타 있는 상태는 차에서 내리면 종료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두 결과 상태간의 구분을 이해할 때, 과거형이 전달하는 완료형 결과 상태는 불변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상태이므로 ‘아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3.2. 문법 표지에 의해 시간 척도가 형성되는 경우

‘아직’을 허용하지 않는 문장들에 특정 문법 표지가 추가되면서 ‘아직’이 허용되기도 한다. 어휘적 결과 상태나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들이 추가되면, 이들 표지가 전달하는 일시성으로 인해 시간 척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어휘적 결과 상태(target state)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어 있-’이나 ‘-고 있-’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로 인해 ‘아직’을 포함하는 비문들이 구제될 수 있다.

- (12) a. 미나가 아직 차에 타 있었다/\*미나가 아직 차에 탔다.  
 b. 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문이 아직 열렸다.

완료적 결과 상태와 달리 어휘적 결과 상태는 취소가능하고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어휘적 결과 상태와 그 상태가 중단된 이후의 상태는 시간 척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나가 차에 타 있는 상태는 미나가 차에서 내릴 때 끝나는 상태이므로, <차에 타 있다, 차 밖에 있다>와 같은 척도를 가능하게 한다. ‘차에

타 있다'는 이 척도의 하한값이므로 '아직'과의 공기가 가능하다. '아직'으로 인해 차 안에 있는 상태와 이후 차 밖에 있는 상태간의 대조가 대조되어, (12a)는 '미나는 차에 타 있었고, 차에서 내려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12b) 역시 마찬가지이다. '열다'의 어휘적 결과 상태인 '열려 있다'는 문이 닫히는 사건에 의해 닫혀 있는 상태로 이어지므로, <열려 있다, 닫혀 있다>의 척도가 생겨난다. 이 척도에서 '열려 있다'가 하한값이므로 '아직'과 공기가 가능한 것이다.

미완료 표지 '-고 있-'은 지속성(durative)의 사건과 만나면 진행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표지로 인해 완료의 사건이 미완의 상태로 변화되고, 원래 허용되지 않던 '아직'이 가능해지게 된다.5)

- (13) a. 미나는 아직 걷고 있었다/\*미나는 아직 걸었다.
- b. 미나가 아직 집을 짓고 있었다/\*미나가 아직 집을 지었다.

Vlach (1981), Parsons (1990), de Swart (1998) 등의 논의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진행상을 나타내는 요소는 사건 술어(predicates of events)를 시간 술어(predicates of time)로 변환시킨다. 어느 사건이나 그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지속되는 상태가 존재하는데, Parsons (1990)는 이 상태를 진행 상태(in-progress state)라고 부른다. 진행 상태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의 일시성이다. 예를 들어 '새가 날고 있다'와 '새는 난다'를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후자와 달리 조사를 바꾸더라도 총칭문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진행만을 전달한다. 이 진행의 상태는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며, 이 상태가 중단된 다음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13a)의 경우, <걷고 있었다, 걷기를 그만두었다>와 같은 시간 척도를 가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간 척도의 존재가 '아직'을 가능하게 한다.

### 3.3. 시간 척도의 상한값과 '아직'의 공기 제약

술어 자체의 어휘적 특성 혹은 문법 표지가 전달하는 구문적인 성격으로 시간

5) 주로 사건 동사와 결합 가능한 '고 있-'을 문법적으로 상태 술어로 분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자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결 어미 가운데 '-하자마자'는 주절에 사건 동사만이 가능하고, 종속절과 주절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ia)에서 도착 직후 얼굴이 환해진/상을 차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에 주절이 상태 동사인 (ib)는 비문이 된다. (ic)에서 사건 동사인 '차리다' 역시 '고 있-'과 결합한 경우, 사건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와 동일하게 비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i) a. 내가 도착하자마자, 미나가 얼굴이 환해졌다/상을 차렸다.
- b. \*내가 도착하자마자, 미나가 얼굴이 환했다.
- c. \*내가 도착하자마자, 미나가 상을 차리고 있었다.

척도가 형성되는 경우라도, 문장에서 제시하는 상태가 시간 척도가 허용하는 최대치, 즉 시간 척도의 상한값에 도달했다면, 부정될 수 있는 이후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문장은 ‘아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꿔 말해, ‘아직’은 시간 척도의 상한값과는 공기(co-occur)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아직’의 분포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앞 절에서 상표지 ‘-어 있’이 표현하는 어휘적 결과 상태가 시간 척도의 하한값으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14) a. 미나는 아직 살아 있다.  
 b. \*미나는 아직 죽어 있다.  
 c. 서민 경제는 아직 죽어 있다.

살아 있음의 상태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죽어 있는 상태로 전환되므로, <살아 있다, 죽어 있다>의 시간 척도가 형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14a)와 (14b)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살아 있다’는 이 척도의 하한값으로서 ‘아직’과 공기할 수 있고, ‘아직 살아 있다’는 척도상 다음 단계의 부정인 ‘아직 죽지 않았다’를 의미한다. 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 죽음 이후의 단계를 가정하지 못하므로 ‘죽어 있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시간 척도의 상한값이 되고 ‘아직’과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14c)에서와 같이 적절한 논항과 함께 ‘죽어 있다’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된 이후의 단계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죽어 있다’가 하한값이 되어 ‘아직’과의 공기가 가능하다.

긍정 술어와 부정 술어간의 대조적인 모습 역시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15)에서 어휘적 부정 술어들은 종로 가능한 상태를 지시하므로 시간 척도의 하한값이 될 수 있지만, 긍정 술어들은 종로 불가능한 상태를 지시하고 시간 척도의 상한값이 된다.

- (15) a. 미나는 아직 소식을 모른다/\*안다.  
 b. 미나는 아직 경험이 없다/\*있다.  
 c. 미나는 아직 돈이 없다/있다.  
 d. 결과가 아직 미확정이다/\*확정이다.

‘모른다’가 나타내는 알지 못함의 상태는 이후 소식을 아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반면 일단 알게 된 소식을 모르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물론 알았던 사실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따라서

<모른다, 안다>의 시간 척도가 형성되고, 이 중 하한값인 ‘모른다’는 ‘아직’과 양립이 가능하지만, 상한값인 ‘안다’는 그렇지 않다. 같은 논리로, 경험이 없다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지만, 일단 경험을 한 후에 경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경험이 없다, 경험이 있다>만이 가능한 시간 척도가 되어, 상한값인 ‘경험이 있다’는 ‘아직’과의 공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있다’와 ‘없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척도의 형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경험과 다르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양 방향의 변화가 가능하므로 두 개의 시간 척도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15c)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가 사라지고 두 술어 모두 ‘아직’과 공기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미확정인 것은 이후 확정될 수 있지만 일단 확정된 것은 미확정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미확정, 확정>의 시간 척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15d)의 두 문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준다. 상한값인 ‘확정’은 ‘아직’과 공기할 수 없다.

어휘적 부정 술어와 부정 접사를 포함하는 문장들이 ‘아직’을 허용하는 것을 볼 때, 부정소가 ‘아직’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정소 없이 비문인 문장들이 부정소가 추가되면서 정문이 된다.

- (16) a. 미나가 아직 안 걸었다/\*미나가 아직 걸었다.
- b. 미나가 아직 차에 안 탔다/\*미나가 아직 차에 탔다.

완료상의 사건 술어가 있는 문장에서도 ‘아직’이 허용되는 것은 부정소 ‘안’ 때문이다. 본고는 부정소를 상태화소(stativizer)로 취급하여 완료상의 부정문을 지속상(continuative)으로 보는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Veruyt 1993, de Swart 1996). 예를 들어, ‘미나가 안 걸었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구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점에, 미나가 걷는 사건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나가 걷지 않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이 부정의 상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할 때, 즉 미나가 걷기 시작할 때 중단된다. 그 시점부터는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완료적 결과 상태가 성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안 걸었다, 걸었다> 혹은 일반화시켜 <안 했다, 했다>와 같은 시간 척도가 형성되고, 하한값인 완료상의 부정문만이 ‘아직’과 공기할 수 있게 된다. 3.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었-’이 전달하는 완료적 결과 상태는 영구적인 것으로 ‘아직’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아직’과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 3.4. 부정의 효력을 갖는 표현들

앞 절에서 부정소나 부정 술어 등이 긍정 술어와 비교하여 척도상의 하한값의 위치를 차지하므로 ‘아직’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 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정의 효력을 지니는 표현들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겠다. 정도의 부사 ‘덜’, ‘전(before)’을 포함하는 명사구나 절, 부정의 효력을 갖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그 대상이다.

‘익다/마르다/굳다’와 같은 완성 동사는 과거형의 문장에서 ‘아직’과 공기할 수 없지만, 정도의 부사 ‘덜’이 추가되면 정문이 된다.

(17) a. 감이 아직 덜 익었다/\*감이 아직 익었다.

b. 빨래가 아직 덜 말랐다/\*빨래가 아직 말랐다.

(17a-b)에서 ‘덜’이 ‘안’으로 교체되어도 문장은 동일하게 문법적이며, ‘덜’은 부정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안’과 비교해 볼 때, ‘덜’은 부분 부정소로 기능하면서, 동사가 전달하는 사건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음을 전달한다. (17a)에서 감들은 여전히 익는 과정 중에 있으며 동사 ‘익다’가 가리키는 사건의 정점(culmination point)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즉, ‘덜’은 완성 사건의 완결 부분을 제거하고 완성의 사건을 미완의 상태로 전환시켜준다는 점에서 진행상의 문법 표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덜 익었다’는 ‘익는 중이다’ 혹은 ‘익고 있다’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부사 ‘덜’은 시간 척도의 중간 단계 요소를 만들어 내는 표현이다. 감이 익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볼 때, <안 익었다, 덜 익었다, (다) 익었다>의 시간 척도가 형성되고, 척도 상에서 상위값이 존재하는 ‘안 익었다’와 ‘덜 익었다’는 ‘아직’과의 공기가 가능하지만, 상한값인 ‘(다) 익었다’는 ‘아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을 허용하는 또 하나의 구문은 ‘-전(before)’이 이끄는 명사구 혹은 절이다.

(18) a. 아직 출근 전이다/\*아직 출근 후이다.

b. 아직 해가 뜨기 전에/\*아직 해가 뜬 후에 정상에 올랐다.

c. 아직 공연이 끝나기 전에 공연장을 나왔다.

d. \*아직 공연이 끝나고 나서 공연장을 나왔다.

(18)의 문장들은 ‘아직’과의 공기에 있어 ‘-전(before)’과 ‘-후(after)’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 연결사(temporal connectives)가 야기하는

상태의 종료 가능성에 달려 있다. 어떤 사건의 이전 상태(before-state), 즉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상태는 그 사건의 발생과 함께 종료되고, 사건의 이후 상태(after-state)로 넘어가게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라는 이후 상태는 과거 시제가 표현하는 완료상과 마찬가지로 종료될 수 없는 영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출근 전’은 출근과 함께 종료되지만 ‘출근 후’는 지속적이다. 따라서 <출근 전, 출근 후>의 시간 척도가 가능하다. 여기서 종료 가능한 ‘출근 전’의 상태는 하한값으로 ‘아직’과 공기할 수 있고, 종료 불가능한 ‘출근 후’의 상태는 상한값이 되어 ‘아직’과 공기할 수 없다. ‘아직’이 ‘-전’이 이끄는 명사구나 절에 허용되는 것은 앞 절에서 보았던 부정소나 부정 술어의 경우와 유사하다. 출근 전이라면 출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런 점에서 ‘-전’은 부정의 효력을 갖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과 ‘-후’의 차이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후에’나 ‘-고 나서’와 달리 ‘-기 전에’가 ‘아직’과 공기하는 문장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19) a. 아직 이도 나기 전에 갈비를 뜬다.
- b. 단풍이 아직 떠나기 전에 성급한 눈이 내려 버렸다.
- c. 매미는 여름 한 때 요란히 울다가 아직 더위가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부정의 효력을 갖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또한 ‘아직’을 허용하는 환경이다. 명시적으로 부정소가 있는 부정 명령문/청유문에 나타나는 ‘아직’은 여타 부정문에서 ‘아직’의 출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절의 논의는 명시적인 부정어가 없으나 실제적으로 부정 명령의 효력을 갖는 명령문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논의가 청유문에도 해당되며, 자료는 명령문으로 제시한다.

- (20) a. \*아직 해라/자라/익혀라.
- b. 아직 하지/자지/익히지 말아라.
- c. 아직 더 해라/자라/익혀라.
- d. 아직 (더) 기다려라/버터라/참아라.

(20a)의 문장들은 명시적인 부정소가 추가되어야만 정문이 된다.<sup>6)</sup> 앞 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부정 술어는 시간 척도의 하한값이 되므로 ‘아직’과 공기할 수 있다. 주목할

6) 심사자 중 한 분은 명령문에서 ‘아직’의 출현에 대해 필자와 다른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20c-d)류의 문장들이 구어체나 인터넷 용례 등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것은 (20c)가 부정소가 아닌 ‘더’로 인해서 정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d)의 명령문은 ‘더’의 유무와 관계 없이 ‘아직’을 허용한다.

(20c)에서 ‘아직’의 출현, (20c)와 (20d)의 차이는 술어들의 어휘적 의미와 ‘아직’의 의미가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명령문은 청자가 (가까운) 미래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제시한다. 발화시에는 그 행동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명령문을 통해 이전에 없던 행위가 개시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령문 ‘자라’는 자는 행위가 발화 이전에는 없던 상황에 자는 행위가 시작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부사 ‘더’는 지속성의 의미를 추가하므로, 명령형은 행위의 개시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행위의 지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화된다. ‘더 자라’는 자던 사람에게 계속 잘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간 척도의 관점에서 살펴 보자. 진행 중인 어떤 행위는 시간이 흐른 뒤에 지속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 행동이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인 행위라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중단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더 하다, 그만두다> 혹은 <지속하다, 중단하다>와 같은 시간 척도를 가정할 수 있고, ‘아직 더 자라’는 요청은 잠을 그만두지 말라는 요청에 준한다. 부사 ‘더’는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아직’은 그 척도의 상위값을 부정하게 되므로 부정소 없이도 부정 명령문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d)의 명령문들은 왜 ‘더’ 없이도 ‘아직’을 허용하는 것일까? 이것은 ‘기다리다/버티다/참다’의 어휘 의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동사들은 자체 의미로 인해 부사 ‘더’의 도움 없이도 시간 척도의 형성이 가능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이 동사들은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들 행위의 다음 단계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간 척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기다리다, 행동을 취하다>와 같은 시간 척도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기다리라’는 명령은 아직 다음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뜻의 부정 명령문이 된다. 버틴다는 것 역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버팀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포기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버티다, 포기하다>의 척도를 가정할 때, ‘아직 버티라’는 ‘아직 포기하지 마’의 의미가 된다. 부사 ‘더’ 없이도 시간 척도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더’의 유무가 이들 동사의 명령형이 ‘아직’과 공기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다만 ‘더’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더 기다리다, 그만 기다리다>와 같은 척도를 가정하게 될 뿐이다. 어떤 경우이든 시간 척도상의 상위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명령문에서 ‘아직’을 허용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명령문을 구성하는 술어를 하한값으로 갖는 시간 척도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3.5. 양상의 표현들

마지막으로 ‘아직’을 허용하는 환경은 ‘-수 있-’, ‘-야 하-’와 같은 양상의 맥락이다. ‘끊다/마치다’와 같은 달성 동사들이 가능성의 ‘-수 있-’, 필연성의 ‘-야 하-’와 결합하면 ‘아직’과의 공기가 가능해진다.

- (21) a. \*미나는 아직 담배를 끊는다.
- b. 미나는 아직 담배를 끊을 수 있다.
- c. 미나는 아직 담배를 끊어야 한다.
- d. \*미나는 아직 학위를 마친다.
- e. 미나는 아직 학위를 마칠 수 있다.
- f. 미나는 아직 학위를 마쳐야 한다.

(21a/d)에서 보듯, 현재형의 달성 동사들은 ‘아직’을 허용하지 못하지만, 양상 표현이 추가되면 가능해진다. 어떤 특정 시점을 지나서는 금연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21b)가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은 그 시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시점이다. 즉, 발화시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시구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21c)의 발화 상황을 위해, 미나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금연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21c)를 발화할 수 있는데, 그때 미나는 ‘담배를 끊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상태는 미나가 담배를 끊을 때까지 지속되다가, 일단 담배를 끊으면, 그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사라지기에 ‘담배를 끊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전환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살펴 볼 때, 양상 표현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나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상황의 전개가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가 경험하는 상태의 변화는 걸을 수 없음의 상태에서 걸을 수 있음의 상태로의 변화이므로, 이 경우의 시간 척도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될 것이다.

‘아직’이 취하는 척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능성과 필연성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상 표현의 정보량(informativity)에 근거한 척도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 양상 표현들과 관련해서 <may, must>, <possible, necessary>와 같은 척도를 가정하고, *may*나 *possible*이 *must*나 *necessary*보다 전달하는 정보량이 적은 약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양의 격률이 준수된다는 가정 하에, 약한 표현의 사용은 강한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함축을 낳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근거한 양상의 척도는 시간 축에서 실현될 수 있는 변화라면 모두 허용하므로 정보량

에 의한 양상의 척도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결론적으로 ‘아직’의 출현은 시간 척도상 상위값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의 수식을 받는 술어는 시간 척도상의 하한값이고, ‘아직’이 전달하는 의미의 핵심은 하한값과 부정되는 상위값 사이의 대조이다. 시간 척도의 형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술어가 시간 척도상의 상한값이라면, ‘아직’의 출현은 불가능하다. 외연적으로 다양한 많은 구문들이 시간 척도를 도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아직’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었다.

#### 4. 결 론

본 논문은 상부사 ‘아직’이 문장 내의 초점 성분과 연계하여 시간 척도상의 선택지를 도입하는 초점 연계사임을 제안하였다. 시간 순으로 형성되는 시간 척도  $\langle A, B \rangle$ 에서 ‘아직 A’는 척도상의 하한값 A의 상태에 있음을 단언하고, 상위값 B를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직 A’는 ‘B가 아님’을 함의하고, 이러한 부정 함의가 가능한 환경에서만 ‘아직’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부정어 및 부정 술어 이외에도 진행상과 결과상을 나타내는 ‘-고 있-’과 ‘-어 있-’, 가능성과 필연성의 양상 표현 ‘-수 있-’과 ‘-야 하-’, ‘-전-’을 이용한 명사구나 절, 비교의 부사 ‘덜’과 ‘더’가 시간 척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아직’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제안대로 ‘아직’을 포함하는 모든 문장이 잠재적인 부정문이라면, ‘아직’이 초점사이면서 동시에 부정극어가 아닐지를 의심해 보게 된다. 부정소와 부정 술어 이외에도 양상 표현이나 ‘-전-’ 등은 부정극어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맥락이며, 완료상의 과거형 문장에서 ‘아직’이 보이는 비문법성은 같은 환경에서 ‘아무도’가 야기하는 비문법성과 매우 유사하며, 두 경우 모두 부정소에 의해 구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극어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 바대로 (Krifka 1995, Lahiri 1998, Lee, Chung, and Nam 2000 등), 척도의 끝점(scalar endpoint/lower bound)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종종 부정극성을 띄게 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의 부정극성은 가능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 보면, 그러한 결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이 완료상의 과거형 문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정극어를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진행상과도 공기할 수 있다(Giannakidou 2011). 더불어 동일 술어의 긍정 상태나 부정 상태 모두와 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부정극어로 결론짓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 나아가 Baker (1970), Linebarger (1987) 등이 제안한 부정 함의나 함축에 의한 허가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 즉 실제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부정극어의 허용을 예측하는 문제도 ‘아직’을 부정극어로 보는 입장을 약화시킨다(Kadmon and Landman 1993, Krifka 1995 등). 다만 ‘아직’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현재와 같은 분포의 제약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현대 문법의 관점에서 비문인 긍정의 맥락에서 더 자주 출현했다는 점을 볼 때(이지영 2010), ‘아직’이 부정극어로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퍼스 등을 이용해 ‘아직’과 공기하는 술어들의 분포를 살피고, 명시적 부정의 맥락과 부정 함의를 지니는 긍정의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는 것이 향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진수. (1985). “시간부사 ‘벌써’ ‘이미’와 ‘아직’의 상과 통사 제약”, 『한글』, 189, 87-111.
- 김선희. (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지영. (2010). “‘아직’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9, 103-129.
- 임서현, 이정민 (1999).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에 관한 연구 ‘이미’와 ‘아직’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4.3, 431-464.
- Altshuler, Daniel and Roger Schwarzschild. (2012). Moment of Change, Cessation Implicature and Simultaneous Readings.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17, 45-62.
- dan der Auwera, Johan. (1993). *Already and Still: Beyond Duality*. *Linguistics Philosophy* 16, 613-653.
- Baker, Carl. (1970). Double Negatives. *Linguistic Inquiry* 1, 169-186.
- Giannakidou, Anastasia. (2011). Positive Polarity Items and Negative Polarity Items. In C. Maienborn, K. von Stechow, and P.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1660-1712. De Gruyter.
- Horn, Laurence. (1972). *On the Semantic Properties of Logical Operator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CLA.
- Ippolito, Michela. (2007). On the Meaning of some Focus-sensitive Particl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1. 1-34.
- Jun, Youngchul. (1998). Aspectual Adverbs and Donkey Anaphora. *Eeohag* 23, 165-187.

- Kadmon, Nirit and Fred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353-422.
- Krifka, Manfred. (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257.
- Krifka, Manfred. (2000). Alternatives for Aspectual Particles: Semantics of *Still* and *Already*.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401-412.
- Lahiri, Utpal. (1998). Focus and Negative Polarity in Hindi.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57-123.
- Lee, Chungmin, Daeho Chung and Seungho Nam. (2000). The Semantics of *Anu N-to/-irato/-ina* in Korean: Arbitrary choice and concession. *Language and Information* 4, 107-123.
- Lee, EunHee (2008). Aspectual and Focus Adverbs in English and Korea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6, 339-358.
- Lee, Youngjoo. (2011). On the Meaning and Uses of *Ajik* 'yet, still'. *Eoneohag* 61, 39-59.
- Linegarer, Marcia. (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 325-387.
- Löbner, Sebastian. (1989). German *Schon-Erst-Noch*: An Integrated Analy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167-212.
- ter Meulen, A. and H. Smessaert. (1994). Aspectual Focus in English and Dutch,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 2*. 353-362.
- Michaelis, Laura. (1993). 'Continuity' within Three Scala Models: The Polysemy of Adverbial *still*. *Journal of Semantics* 10, 193-237.
- Mittwoch, Anita. (1993). Relationship between *Schon-Already* and *Noch-Still*: a Reply to Löbner. *Natural Language Semantics* 2, 71-82.
- Parsons, Terrence.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MIT Press.
- Smith, Carlota. (1997).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ress.
- de Swart, Henriette. (1996). Meaning and Use of *Not ...Until*. *Journal of Semantics* 13, 221-263.
- de Swart, Henriette. (1998). Aspect Shift and Coerc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347-385.

- Verkuyl, Henk. (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emporal and Atemporal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lach, Frank. (1981).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In P. Tedeschi and A. Zaene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4, Tense and Aspect*. 271-292. Academic Press.

이영주  
139-77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youngjoo@swu.ac.kr

접수일자 : 2014. 02. 28  
수정본 접수 : 2014. 12. 12  
게재결정 : 2014. 12. 15

